

▪ Drexel 의대 Barbara E Chick MD 임상교육평가센터 방문보고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취통증의학/의학교육학 김 종 훈

Drexel 대학의 SP center는 약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외곽에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은 부학장으로 있는 Dr. Novack이 책임자로 있으며 또 다른 두 사람이 표준화환자 프로그램 director와 coordinator로 일하고 있다. 센터는 10개의 SP station이 rosette 형식으로 위치해 있고 중앙 모니터실에는 녹화시설과 일방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고맙게도 아침에 Dr. Novack이 호텔까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대학으로 향했는데 생각보다 꽤 멀어서 만약 Dr. Novack이 아니었으면 찾아가기 어려울 뻔 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날에 마침 인근 병원의 내과 전공의를 위한 OSCE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참관할 수 있었다. 전공의들이 표준화환자를 만나는 동안 그들과 같이 온 staff들이 모니터실에서 그들의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모든 session이 끝난 후에는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OSCE에서 나온 증례에 대해 전공의들과 staff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공의 OSCE를 보는 중간에 Dr. Novack의 사무실에 들려 Drexel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기서도 특히 국가시험에 표준화환자가 이용되면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이 어떤 항목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수교육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분야를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staff에게 학생의 지도를 부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한달 가까이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0여년 전에 처음으로 보수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으나 표준화환자가 국가시험에 도입된 후에는 학생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해 많은 학생이 보수교육을 원했다고 하며 이는 Drexel 외에 우리가 방문한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Dr. Novack은 doc.com이라는 website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연도 보여주었는데 이 site는 여러 학교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든 사항을 연출한 동영상과 함께 동영상에서 상황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해설과 함께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당시의 의사나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 website는 1학년 학생의 의사 환자 의사 소통술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소그룹 모임 전에 학생이 이 site의 과정을 스스로 마친 후에 선다형 문제와 서술형 토의문제를 완성하면 담당 튜터는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고 학생과 토의할 내용을 가다듬어 토론식 수업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을 담당하는 튜터가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를 알게 되어 더욱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수뿐만 아니라 4학년 학생도 부 튜터로 참여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렇게 되면 학생은 교육 영역에서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Dr. Novack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 site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며 독일과 스위스에도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번역과 더불어 일부 자체 재

작 프로그램을 첨부하기로 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재촬영은 하지 않고 기존 동영상을 일본어로 더빙한다고 한다. site 자체는 매년 새로운 module을 추가하고 있으며 live chat를 통해 이 site에 가입한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과 특정 module의 내용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고 한다. 또 'clinical skill portal' site를 열어 신체진찰이나 각종 procedure, 윤리 교육에 사용하고 있었다.

방문일정을 마치고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의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분명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우리가 아니 사회가 미래의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여기서 견학한 모든 것은 강의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